

# ‘끝없는 내홍’ 조선대, 학사구조 개편 갈등

### 혁신위, 17개 단과대 13개로 통폐합 개편 교수들 “학내 구성원 의견 묵살했다” 반발

교육부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 강화 대학에 선정된 후 끝없는 내홍을 겪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학사구조 개편안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혁신위원회의 개편 과정에서 총장 직무 대리인 부총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이견 노출 끝에 사직하고 대학 구성원들도 반발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조선대에 따르면 혁신위는 최근 이사회에 학사구조 개편안을 보고했다.

혁신위에는 법인 관계자 2명, 교원 5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창회 관계자 2명, 외부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했다. 기존 17개 단과대 체제를 13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문과학과 외국어 대학은 글로벌인문대학으로, 법과와 사회과학 대학은 법사회 대학으로, 자연과학과 보건과학 대학은 공공보건안전 대학으로, 미술과 체육 대학은 미술체육대학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상당수 단과대는 학과와 학부를 섞어 운영하는 형태다.

글로벌인문대의 경우 국문과, 영문과 등을 존치하되 중국·일본·서남아시아 지역을 전공하는 아시아지역 학부, 프랑스·스페인·러시아·독일 등 지역 전공을 포괄하는 유럽지역 학부를 둔다.

미술체육대 회화학과 아래 서양화·한국화 트랙, 문화콘텐츠학과에 현대조형미디

어·시각문화 큐레이터·가구도자디자인 트랙을 두는 등 ‘트랙’ 개념도 도입했다.

한문학과, 영어과 등은 폐지하고 경찰행정학과는 법과대에서 공공보건안전대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수들은 집단 반발했다. 부총장과 기

획조정실장이 보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단위별 반발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교수평의회는 “평의회에서 통합에 동의하는 단과대 통합과 평가지표에 따른 하위평가 학과의 학부 내 전공단위 전환과 수용을 빼대로 학사구조 개편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묵살되고 배제됐다”고 비난했다.

교수평의회는 이날 오후 임시총회를 열어 혁신위 해체를 촉구하기로 했다.

학장협의회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조정안”이라며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특히 자연과학과 경찰행정 등을 묶은 공공보건안전대는 공직 분야 인재를 배출하는 법과대 특성화를 가로막고 대학 최고 연구 성과를 내는 자연대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선대 관계자는 “혁신위와 교수평의회를 필두로 한 대학 내 마찰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구성원들이 타협, 양보해 대학 발전을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재난 대응능력 높인다 14일 광주 광산소방서 청사에서 소방관이 팀 단위 전술훈련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광산소방서는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19일까지 훈련 평가를 이어간다.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 광주 서부서, 경찰발전위원회 전원 물갈이

### ‘버닝썬’ 투자자 경발위 소속 논란에 전면 재구성... 선정 방식 지적도

클럽 ‘버닝 썬’ 투자자가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로 있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계기로 광주 서부경찰서가 28명의 위원 전원을 해촉하는 등 쇄신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달 초 의료계 2명, 교육계 1명, 개인사업자 25명으로 구성된 경발위원 28명을 모두 해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경찰청 차원에서 유흥업소

중사자 등 결격사유 대상자를 정리하라는 공문을 받은 서부서는 기존 위원의 직업 등을 검토한 결과 결격사유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위촉 기간이 오래됐고,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하지 않은 위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서부서 관계자는 “전체 위원을 해촉하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내부 의

견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쇄신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검증된 기능별 전문가들로 구성해 다양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부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 가운데 경발위에 참여할 전문가를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 간부들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경발위 선정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정영일 선임고문은 “내부 추천 방식으로는 지역·혈연·학연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구조적으로 기관에 친화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들러리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실제로 외부 추천 인사가 포함해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행정기관 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비리정황’ 광주 사립유치원 10곳 고발

### 시교육청 19곳 세무조사 의뢰, 감사 거부 11곳 고발 ‘초강수’

지난해 비리 파문 후 이뤄진 광주 사립유치원 집중 감사를 통해 10곳이 수사의뢰 또는 고발됐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형 유치원, 민원이 제기되거나 폐원 신청한 곳 등을 중심으로 모두 30개 유치원을 감사했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9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1곳은 수사 의뢰했다.

6개 유치원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의 의혹이 불거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비리 의혹 대상이 된 금액은 모두 21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유치원은 계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됐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19개 유치원 세무조사를 세무당국에 의뢰했다.

수차례 방문에도 감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 11곳도 감사 거부로 간주해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범죄나 비위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된 유치원들”이라며 “해당 유치원들의 이의 신청이나 수사기관 판단 등 절차를 거쳐 비리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연초까지 대형 유치원을 중심으로 모두 70곳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뒤 내년까지 159개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마치고 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 “전두환 추종세력 초등학교까지 겁박”

### 5월단체, 극우단체 ‘기자회견’ 명목 초등학교 앞 집회 비판

광주 법정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물러가라”고 외친 광주지역 한 초등학교 앞에서 극우단체가 항의 집회를 하기로 한 것을 두고 5월 단체 등이 “치졸한 행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14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극우단체는 오는 15일 오전 광주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명목은 기자회견이지만 전씨가 법정에서 선 지난 11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을 구속하라”고 외친 초등학교의 행동에 반발한 항의 집회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들은 집회 신고를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내세웠다.

해당 초등학교는 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여서

집회 신고를 낼 경우 불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5월 단체를 비롯한 광주 시민사회는 “어른들이 초등학교생들을 겁박하는 행태”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문화적 의사 표현을 한 것”이라며 “전두환 추종세력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린이들은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 견해가 사회적 통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 견해를 존중하고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게 어른들의 자세”라며 “용서할 수 없는 행태”라고 분노했다.

/차이정 기자 chaajung@

# 여수 도심서 멧돼지 출몰... 인명피해 없어

여수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해 119구조대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14일 여수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5분께 여수시 선원동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던 구조대는 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모회사 사택에서 멧돼지가 나타났다. 2차 신

고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 사이 사택 경비실에선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방송을 하며 안전 조치를 했다.

멧돼지는 119 구조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는 사이 포수에 의해 포획되면서 소동은 1시간여 만에 아무런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여수=오승택 기자 ost6002@

**보복운전, 도로위의 폭력행위입니다**

정말 좋은 물건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소한 이유로 상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차질 대형사고와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운전자 입장에서라도 한번쯤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보복운전은 서로를 지키는 배려운전으로 승화 될 것입니다.

전남도민일보 한국언론진흥재단